

미아리 텍사스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중앙경찰서장 김 강 자

2000년 11월, 내게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서울 일선서에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다 옥천경찰서장으로 내려온지 1년6개월이 돼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을 맞게 된 것이다. 그것은 30년 가까이 경찰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가능성조차 생각해 본일이 아니었다.

“서장님 서울에서 이무영 경찰청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몇번이나 부하직원에게 확인했지만 내게 들려온 것은 똑같은 대답이었다. 경찰청장의 순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울 일선서를 들르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하물며 지방 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내 경찰생활 중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다.

“근처에 무슨 불일이 있으셨나” “아닙니다. 우리 서를 방문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긴장감보다는 궁금증이 더해갔다. 오직 옥천경찰서를 방문하기 위해 이 충청도까지 직접 내려오셨다면 이건 사건도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잠시후 ‘혹시 좋은 일이...’ 하는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기대감은 곧 견잡을 수 없이 내 마음을 방망이질 했다. 막연하나마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것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기대감은 잠시후 사실로 드러났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나를 보자마자 대뜸 질문을 던졌다. “김강자 어디서 근무하고 싶나”. 믿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청장이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 지방서장에게 묻는 질문치고는 파격적이었다. ‘어느 지역으로 옮겨라’가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나’는 내 생각을 묻는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지방근무후 서울 서장으로 가려면 적어도 만 4년을 채워야 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나도 청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경찰서를 원합니다”

내 대답은 총알처럼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다. 솔직히 말하는 믿저야 본전이라는 배짱이었다.

“중앙경찰서? 이유가 있나” “미아리 텍사스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미성년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윤락을 근절시키겠습니다”

“좋아. 나도 자네를 책임자로 생각했네”

먼저 말을 꺼내놓고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은 나였다. 세상에 이런일이. 순간 속으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했던 일에 이뤄진 것이다” 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후 미아리 텍사스촌의 미성년자를 근절시킨 김 서장의 신앙에 바탕을 둔 불타는 활약을 우리 모두는 통쾌하게 지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표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 교회"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
제 3권 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월 7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우리는 이겨 놓고 시작합니다



우리교회 성도의 이야기기에 이름은 밝히지 않으렵니다. 누굴까하는 추측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해가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간에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성탄절 축하행사에 정말 힘든 상대를 고심 끝에 초청하여 그 축하의 자리에 오시게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거북하지만 한 상대지만 그래도 마음을 접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더구나 아내 되는 집사님은 그 분이 우리교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진 적군의 패장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승리한 장수는 오히려 패장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천만대군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와 X자는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입니다. 십자가가 조금만 삐딱하게 누우면 X가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 되지만 X로 드리워져 있으면 출입금지인 문이 됩니다. 비뚤어진 X앞에 바로 선 십자가를 보여 줄 때 비로서 비뚤어진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삐딱하다고 우리까지 삐딱해질 순 없습니다. 비뚤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표준이 있다면 모두들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시계방의 모든 시계들이 하나 같이 틀린채로 걸려있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가 주인이 아는 어느 곳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희망을 갖고 똑바로 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펼친 교우가 있기에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린 다 이겨 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교회는 망부석이 되지만 먼저 움직이는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시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02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예배소서 5:15-17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221 장 (마지막절은읽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일새벽기도: 6:00

<1월 예배 위원>

일 자	헌금위원	주일기 도	수요기도	teatime봉사
7	김교섭, 정희자	김 교 섭	한 은 영	김성국, 안은주
14	김시욱, 장선주	김 영 길	최 윤 호	김교섭, 정희자
21	김영길, 신경화	김 영 태	최 재 학	김시욱, 장선주
28	변지웅, 신신숙	노 은 숙	정 희 자	김영길, 신경화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 삼엘하, 열왕기상 1명, 역대상 2명, 역대하 1명
-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 '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 <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 성경, 찬송"
<주일저녁> "가정 예배"(예배문) 정착
- 주일 저녁 가정예배문
*올 한 해에는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
서 주일 저녁을 배부되는 예배문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직분자 세미나
*직분임명자와 제직들을 위한 제직 세미나를 수요일예배시에 갖겠습니다.
- 제1 약속의 아버지 기도회
*오는 금요일(12일) 저녁 7:30분. 장소:
- 야외예배
*셋째주일(21일) 에 갖습니다
*야외예배 추진위원: 제2 약속의 아버지(변지웅, 김영길, 지윤수, 김시욱)
-tea time 후 추진위원 모임을 갖겠습니다
- 1월의 교회력

일자	교 회 행 사
7일	신년예배, 직분임명 제직세미나 & 제직회(10) 제1약속의 아버지 기도회(12)
14일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9)
21일	야외예배(21), 제2 약속의 아버지 기도회(26)
28일	

@ Homestay 가정을 찾습니다

*오클랜드대학 여자 유학생(1월 말 도착 예정). 방 1칸 단독사용원함